"한국당의 광주 AI클러스터 예산삭감 막겠다"

광주시·민주당 예산정책협, 지역 현안 예산삭감 적극 대응

이용섭 시장 "광주에 AI클러스터 전국에 긍정적 효과 확산"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최근 자유한국당의 광주·전남 일부 현안사업 예산 삭감 움직임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31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민주당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이 일부 현안을 '지역 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하려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광주시와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박광온·이형석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상임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원장, 전해철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이용섭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국회에서 사상 최대인 2조2102억원의 국비 확보에 큰 역할을 해준 더불어민주당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비롯해 지역현안과 내년도 예산 국비확보 및 증액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이 시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일부에서 광주에 인공지능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것이 다른 지역 이해와 상충된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인공지능산업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연구소와 빅데이터센터, 슈퍼컴퓨터 등의 집적화가 이뤄져야 하는 인공지능 산업의 특성상 광주에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긍정적인 효과가 전국에 확산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자유한국당이 광주시의 핵심 사업인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움직임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인식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광주 인공지능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인공지능이라는 융합기술을 빌미로 타지역 전략사업까지 연구하겠다는 건 국가균형발전계획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삭감을 벼르고 있다.

이 시장은 이어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추월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인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인 인공지능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증액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출범과 인공지능사업 선도 등 광주에서 출발한 길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열고 있다"면서 "지역적인 편견으로 인공지능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와 인공지능 사업 등 광주시의 정책 방향이 그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및 예산으로 광주시에 힘을 실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 식당에서 진행된 지역 국회의원과의 예산간담회에는 장병완, 박주선, 천정배, 최경환, 김동철, 권은희, 송갑석, 김경진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광주시와 국회의원들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 단계에서 현안 사업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 의원들은 "(한국당이) 유례없이 지역 예산을 타깃으로 잡아 삭감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 의원들이 전력투구를 해서 대응을 하겠다"면서 "당을 떠나 지역 예산 확보에 모두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 '국제문화예술행사 개최도시 시각 이미지 개선사업' 국비 50억원이 문화관광부에서 통과됐지만,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된 만큼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지난 31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이인영 원내대표, 박광온·이형석 최고위원,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이달초 결판

서진건설 이행보증금 조건부 지급…광주시, 수용 여부 곧 결정

광주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여부를 가르는 사업협약 체결이 늦어지는 가운데 이르면 11월 초 사업 성사 여부가 결판 날 전망이다.

지난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인 서진건설은 이날 시의 이행보증금 일시 납부 요구에 조건부 지급보증 의향서를 보내왔다. 서진건설은 '협약 조건을 일부 변경해주면, 변경된 협약서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거나 지급보증서를 받아 일시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서진건설이 내건 협약 조건 변경 내용은 상가 선분양(아파트 분양처럼 선분양하는 매각),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율 임의 조정 등 5~6가지다.

광주시는 서진건설의 제안이 공모지침에 위배되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한 후 조만간 수용 여부를 결론내기로 했다.

광주시는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에서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 전체 사업비의 10%(480억원)를 이행보증금으로 내도록 했다. 사업 무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모 지침대로라면 지난 7월 23일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 60일 이내(10월 23일) 사업 협약이 체결돼야 하나, 서진건설 측의 사업제안서 내용 변경, 이행보증금 납부방식 협상을 한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조급하게 추진하면 안된다. 이행보증금 납부 방식때문에 사업이 무산될 수는 있어도 절대 사고가 나서는 안된다"고 언급해 주목된다.

협상 과정에서 사업 이행 가능성과 일정한 공익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3차 공모를 무산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식량주권 지키기 농업 종합대책 마련해야"

전남도의회 WTO 대책 촉구

전남도의회는 지난 31일 정부의 WTO 농업분야 개도국 특혜 포기와 관련, 국가 차원의 농업·농촌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재 의장 등 도의원들은 이날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더 이상 농업을 통상외교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고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농업·농촌 피해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가의 대외·경제적인 위상과 국익을 우선으로 WTO 개도국 특혜를 자진 포기 했다고 하나, 현재 농업분야는 WTO 출범 당시 개도국 상황에서 전혀 나아진 게 없다"며 "정부의 특혜 포기로 농산물의 관세 축소와 수입 확대 길이 열리게 되어 한국 농업이 뿌리째 흔들릴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고 우려했다.

도의원들은 "식량자급률이 20%대에 머물러 있고 쌀을 제외하고는 수입에 의존하는 식량안보 위기국가인 우리나라를 다른 국가의 통상 압박 때문에 농업 선진국으로 분류한 것은 위험한 결정"이라며 "앞으로 농업분야 피해가 예측된 만큼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회는 앞으로 정부의 농업·농촌 피해 보전대책 마련을 위해 사업 확대·발굴 등 지역민의 입장을 대변한 중앙정부 정책 제안·건의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영광 안마도·신안 선도 '가고 싶은 섬'으로 가꾼다

전남도 2020년 사업대상지 선정

5년간 50억씩 들여 콘텐츠 개발

'서해의 해금강' 영광 안마도와 '수선화의 섬' 신안 선도가 2020년 '가고 싶은 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2개 섬은 내년부터 5년간 각각 50억원을 들여 섬별 특성을 살린 창의적 콘텐츠 발굴과 실행, 소득 기반 구축, 마을공동체가 운영하는 섬마을 만들기를 위한 주민대학 운영 등 섬 가꾸기 등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지난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가고 싶은 섬 사업 대상지 선정은 6개 시·군 9개 섬에 대해 섬의 고유한 생태자원, 매력적인 섬 문화, 사업의 적합성, 창의성, 실현가능성, 주민 참여 및 시군의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

113세대 187명이 거주하는 영광 안마도는 우리나라 서쪽 영해를 결정짓는 직선기선의 한 끝이다. 영토적 차원과 수산자원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름다운 생태환경과 전통 문화자원을 활용한 풍부한 스토리텔링 등을 활용, 특색을 살린 청정 생태여행지로 가꿀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163가구 260명이 사는 신안 선도는 현복순(88) 할머니가 10년 전부터 자신의 집 마당에 수선화를 심어 매년 3~4월이면 수선화 꽃과 향이 가득, 수선화 섬으로 알려졌다. 지난 봄에는 임야를 제외한 섬 전체 70% 면적에 100여 종의 수선화를 심어 제1회 1004섬 수선화축제를 개최하기도 했다. 수선화를 예술과 결합해 6차산업으로 부각할 수 있는 랜드마크적 요소가 충분하고, 육지와 가까워 가족단위 관광객이 주기적으로 찾을 수 있는 예술휴양 섬으로의 발전가능성이 높게 평가됐다.

'가고 싶은 섬' 사업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24개 섬을 선정해 주민은 살고 싶고 관광객은 가고 싶은 지속가능한 섬으로 만들기 위한 전남도의 대표 섬 정책이다. 그동안 5년간 모두 4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으나, 2020년부터는 10억원이 증액된 50억원을 지원한다. 공모 신청 기준도 읍면 소재지와 인구 수 제한사항을 폐지해 규모가 큰 섬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첫 해인 2015년 여수 낭도 등 6개 섬을 시작으로 매년 2개 섬을 추가 선정해 현재는 14개 섬에서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관광객을 위한 기초 기반시설을 완료하고 문을 연 8개 섬의 경우 마을 식당, 카페, 게스트하우스, 특산물 판매 등으로 3년간 14억7000만원의 마을 공동소득을 창출했다. 섬 관광객은 91만2000명으로 사업 시작 전인 2014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사업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45가구 59명이 귀어했다. 올 들어선 6월 말까지 12가구 14명이 귀어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합참 "北, 29일 만에 동해 방향 미상 발사체 발사"

軍, 기종 분석 추가 발사 대비

북한은 지난 31일 오후 동해 방향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지난 2일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발사한 지 29일 만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번까지 12번째 단거리 발사체 및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31일 "북한이 오늘 오후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의 기종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육상에서 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미뤄 SLBM이 아닌 초대형 방사포나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10일 오전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했으나, 한 발은 내륙에 낙하해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2-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서구 마륵동 도로접 땅 378㎡ 투자에도 좋음 5억2천
•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 땅 891㎡ 주택·창고 137㎡ 전망 좋음 2억5천
• 곡성군 옥과면 수리 계획관리지역 전 9504㎡ 투자에 좋음 1억9천
• 급매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목포대학 건너편 680㎡ 전원생활적합 3300만원
• 충남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 땅 1749㎡ 교환 2억 현금 매도는 조정 가능
• 함평군 손불면 산남리 땅 9143㎡ 집 67㎡ 귀농생활 적합 2억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땅 450㎡ 건평 110㎡ 매도 2억8천
• 농장 적합 화순군 동면 대포리 10959㎡ 전원생활에 좋음 2억8천
• 무안 몽탄면 영산강접 48900㎡ 펜션 14개등 요양시설 등 적합 교환가 28억
• 광천파출소 건너편 준주거 1259㎡ 병원 등 다용도 76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공장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25억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매립된 땅(답) 8232㎡ 주위조경좋음 9억4800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생활편리 5억5천
• 풍수상 사찰 최고 적합 덕남동산 26951㎡ 건물 67㎡ 교환가능 가격 조정됨 8억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읍 백암리 1130㎡ 조망 좋음 1억3천

상가건물
• 운암동 아파트 단지 인근 땅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계림동 이마트부근 6m 도로접 땅 799㎡ 건물 497㎡ 은행 7억 사옥 적합 15억천
• 운암동 아파트 상가동 지하 205㎡ 매입 2억 창고·사무실 등 적합 은행 8천 매도 1억5천
• 신축 원룸 광산구 도천동 땅 226㎡ 건물 381㎡ 안집 있고 원룸 11개 9억5천
• 유동 신축커피숍 대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3억6천
• 북구 임동 모텔 땅 318㎡ 건평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특급물건
• 급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6층 전유 73㎡ 5억7천
• 월산동 상업지 땅 220㎡ 5층 건물 768㎡ 리모델링 필요 은행 3억 매도 6억
• 요양시설 영광 법성면 땅 5416㎡ 1층 477㎡ 증축 가능 은행 4억 매도·교환 8억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소형APT 다세대 적합 교환 가능 9억5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지난 20년간 13,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강의
(컨설팅과 재테크)
전임강사 : 정 영 수 경영학박사
(부동산 전공)

● 평생교육공로 교육과학부장관상 수상
● MBC – TV 방송국 경제특강
● KBC – 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강의
● 전남대 20년 강의(전대 용봉인상 수상)
● 공무연수원,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회 이상 특강

특 전
자격 취득 희망시, 공인부동산빌딩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권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모임체 결성하여 평생지도하여 드림

▶강의일정 | 2019년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19:00~21:00
▶강 의 료 | 210,000원(15주) * 선착순 50명
▶조선대 평생교육원
전화 062)230-7700-2(010-5613-1808)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7년
창사67주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지국안내 •
북 구 ·동 광 266-1920 ·문 흥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 안 222-8171 ·양 산 571-7658 ·오 치 266-7601 ·용 봉 433-1503 ·우 산 433-1503
동 구 ·남 광 675-5530 ·동 명 222-9054 ·동 부 225-6001 ·중 앙 222-9054 ·충 장 222-8171
남 구 ·남 부 652-0175 ·백 운 651-1833 ·봉 선 675-5530 ·송 하 675-6605 ·진 월 671-7276
서 구 ·광 천 382-5788 ·상 무 372-2352 ·서광주 369-1625 ·운 천 376-7153 ·치 평 376-6511 ·풍 암 603-0311 ·화 정 369-1625
광산구 ·운 남 952-1687 ·월 곡 959-1920 ·첨 단 973-2900 ·하 남 955-0451 ·광 산 944-0444